

상악 임플란트지지 피개의치의 실패원인과 그 대책

송광엽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연자약력

1981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5. 7~96. 7 : Oregon 주립대학 방문교수
 1987~현재 :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상악 무치악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은, 보철물의 심미성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은 복잡한 보철의 한 분야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환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세밀한 평가와 충분한 진단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보철 수복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상악 무치악의 경우 무엇보다 심미성과 보철물의 수명에 관계되는 교합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Hutton(1995) 등은 3년간의 임플란트 피개의치에 대한 임상연구에서, 상악 피개의치의 실패율(27.6%)이 하악 피개의치(3.3%)보다 9배나 컸음을 보고하고 있고, 이는 이전에 보고되었던 고정성 임플란트지지 보철물의 성공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임플란트 피개의치의 경우 골조직의 질이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음을 들고 있으며, 적절한 골조직에서는 고정성 수복물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임플란트지지 피개의치의 5년 임상연구에 대한 Watson 등(1997)의 보고에 의하면, 상악의 경우 72.4%, 하악의 경우 94.5%의 성공률을 보여 역시 상악에서의 성공률이 떨어짐을 보이고 있다. 환자의 조직 반응에서도 상악의 경우 약 30%의 환자에서 조직증식과 점막의 염증을 호소하고 있고, clip의 탈락이나 느슨함, 보철물의 재이장, 그리고 bar의 파절 등 보철물의 complications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재에서는 상악 임플란트 피개의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 보고된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몇 개의 임상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